

# 2006 한국홀스타인 품평회 출품축 관리요령(1)



글 양신철  
유우개량부 심사팀장

## 1. 건강하고 체형이 우수한 출품축 선정

9월초 현재 각 지역과 목장을 대표하는 출품축 선정이 마무리되어, 출품우들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 출품이 처음이거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출품자와 낙농가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한다.

아마도 선정된 출품축은 각 목장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건강한 개체에 임틀림없을 것이다. 앞으로 10월 18일까지 긴 여정일 것 같으나 바쁜 목장의 일정 속에서는 일단 출품이 결정되면 마음만 조여와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미경산우는 아직 유방이 형성되지 않아서 정확한 젖소의 모습을 판단하기 힘들지만 미경산우 심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개월령에 걸맞게 잘 발육되고 있는지와 비유능력이 우수해 보이는지를 주안점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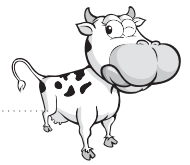


미경산우의 이상적인 모습

라서 몸전체와 내장에 여분의 지방이 없어야 건강하고 비유능력이 우수한 개체이며, 엉덩이와 넓적다리 부분에 긴 약간의 지방은 잦은 목욕과 순치훈련을 통해 관리한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품평회장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산우의 경우에는 평소 우리의 목장지킴



경산우의 이상적인 모습들

이들 가운데 보다 체형적인 면을 갖추고 있는 우수한 기능적인 소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성의 대표가 되는 유기부분이 뛰어난 개체의 선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상의 중요한 점은 비유단계에 따라 몸상태가 약간 살붙임이 있는 것은 생리상 자연스런 몸상태임으로 과도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처음부터 비유전기의 개체를 선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출품축 선정이라 생각된다.

## 2. 길들이기와 애정 쏟기

출품축으로 선정된 개체들은 하루속히 우군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환경 여건상 힘든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하에서도 우리는 출품축 관리에 힘써야만 한다.

### ① 굴레 쉼우기

출품우가 선정되면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이 굴레에 대한 적응력과 사람에게 길들여져야 하는 과정이다. 굴레는 목이나 얼굴주위에 압



박감이 달해 상처가 나지 않는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긴급시에 매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제일먼저 지면에서 60cm의 간격을 두고 얼굴에 굴레를 씌워 파이프나 안전한 기둥에 매어놓고 반나절동안 굴레에 대한 적응력을 키운다. 이때 굴레와 기둥과의 거리가 너무 길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굴레의 끈을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순치기나 스킨드로드로 길들이기

순치기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두번 출품경험이 있는 농가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그 효과를 많이 보고있다. 예전에는 한집에서 2두 이상 출품시 많이들 힘겨워했지만, 최근들어 3두 이상 출품 농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원인중의 하나가 예전에는 출품축 한 마리를 길들이는데 하루종일 축주가 훈련을 시켜 사람도, 소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 그림과 같이 순치기를 이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출품축을 길들이 수 있다. 또한, 운동을 통한 지방연소도 이루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어 널리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처음 라운드에 소를 잡아매고 난 뒤 축주는 주위깊게 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힘이 없거나 뺨대는 소들이 넘어지거나 할 때 안전사고발생의 위험 때문이다. 하루정도 순치기를 통해 적응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대개 30분 정도의 지속훈련은 거뜬히 소화해 낸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확인하는 바이다. 만약 위와 같은 순치기가 없는 곳은 스킨드로나 트랙터를 이용한 강제 견인방식도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③ 우체씻기는 완벽한 길들이기다.

굴레에 대한 3일 정도의 적응훈련이 끝나면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제를 이용하여 우체의 더러운 이물질들을 말끔히 씻어낸다. 그리고 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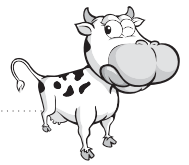


이 많이 나있는 극상돌기 부분등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부드럽게 한 후 제모작업 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잘 말려야 한다. 이는 제모기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체씻기는 출품 한달전부터는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여 뽕뽕뽕한 피모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출품 3일전부터는 매일같이 실시하는 것이 출품전 제모작업을 마무리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출품 일주일전부터는 매일같이 씻기는 부지런함이 요구되며, 여름철에 털이 쑥쑥 자라므로 목욕을 자주해 주어야 한다. 목욕시에는 소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가 사람의 소리에 적응이 되도록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져 출품자의 말에 좋은 반응을 나타내게 해야 한다.

착유우는 오전에 목욕을 하여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우체씻기를 하러 목욕실로 오갈때는 출전시에 사용되는 가죽굴레를 이용하여 실전과 같은 굴레잡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④ 보행연습시키기



리운드머신을 이용한 길들이기와 우체씻기 작업을 여러차례 하다보면 어느덧 소들이 처음 보다 많이 순해져 길들이기가 다 끝난 것 같은 생각들을 한다.

출품우를 길들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호흡이다. 이제는 박자에 맞춰 출품자의 완급조절에 의해 소들이 보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순서가 남았다. 우선 굴레를 씌워 땅이 있는 곳에서 실전과 같이 시간을 조절해가며 빨리 보행시키기, 천천히 보행시키기, 후퇴시켜 보기, 정지시켜보기, 정지했다가 바로 출발하기 등 다양한 행동들을 연습한다. 출품축의 목 위치를 항상 심사자를 향한다는 생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자세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주는 영양식단이 아주 중요하다.

### 3. 제모작업 (털깎기 및 최종마무리)

최근들어 품평회마다 털손질 및 제모작업에 대한 인식과 실력들이 많이들 향상되었고 이제는 아주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진다. 제모를 하고 털손질을 미친 출품우를 바라볼때면 손질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감탄이나경이감을 자아낼때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올해 대회에서도 털손질 기술에 따라 순위 결정에 크게 기여할거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 ① 준비작업



제모작업에 필요한 도구들

제모작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우선 이발기의 상태와 구조, 관리상의 요령 등이 익숙한 사람을 통해 연마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빠르다. 그래서 지역마다 털손질을 할 때는 다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품평회를 준비하면서 즐겁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② 제모작업은 안전하고 넓은 장소에서 실시



간혹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제모작업을 할 때인데 장소는 안전하고 넓은 곳에서 주위에 가해의 요소들이 없는지 잘 판단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몸의 상태와 이발부위에 따라 적절한 두께의 날을 선택하여 멋진 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반드시 제모작업에 앞서 우체씻기를 하여 털이 깨끗하고 고운상태여야 더욱더 좋은 이발이 가능해지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최소 출품 한 달 전에는 전신제모에 돌입하고 출품 일주일전쯤 2차이발로 몸통부위나 머리등을 다시 손질하며 대회 2일전이나 하루전 모든 미비한 점을 모두 손질한다. 마지막으로 등선세우기는 하루전날 90%정도 완료한 후 출품 당일날 마지막 마무리작업에 임하면 되겠다.

③ 털손질은 꼬리부터 부드럽게 실시

꼬리부터 시작한 제모작업은 대개 좌측몸통 부분과 사람이 서서 닿은 부위를 가볍게 이동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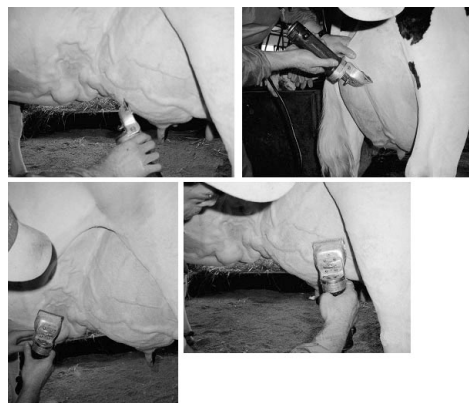
가면서 작업을 하고 완전 배 밑이나 등선 가까이 5cm가까이는 등선세우기 작업을 위해 접근을 금하고 그외에 대략적인 부분은 가볍게 손을 댈다.

④ 머리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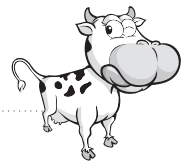


제모작업시 가장 까다롭고 소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이므로 머리를 아래그림과 같이 기둥등에 밀착시켜 움직임을 최소화한 후 미세 이발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천천히 털삭이를 해야한다.

⑤ 유방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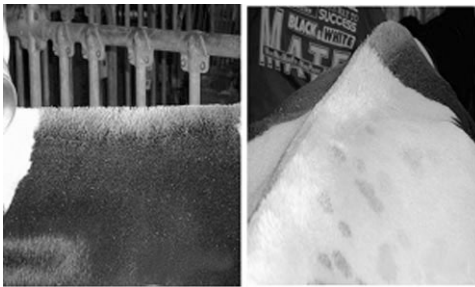






이발기를 반대로 하여 이발기의 날이 직접 유방표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게 조금씩 이행하면서 유방표면의 잔털을 해결한다. 특히 유정맥과 힘줄부위를 작업할 때에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⑥ 등선세우기



소가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고 사람도 차분한 상태에서 조금씩 천천히 작업한다. 등선의 높이를 확인하면서 힘있게 보이기 위해 새끼손가락을 이발기 날 부분에 대고 안전하고 부드럽게 이행해간다.

등선세우기의 최종작업은 대회 2일전이나 하루전에 거의 완성시킨 후 출품당일 드라이기와 동물용 강력스프레이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등선 세우기 작업을 마무리한다.

#### 4. 유방부풀리기 작업



이번대회는 19일날 일제히 경산우 부분만 행사가 진행된다. 출품우들은 출전시간 14~16시 이전에 완전착유를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개체별 또는 분방별 유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방을 부풀린다. 과도한 유방부풀리기는 유방염 및 소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상적인 착유시간의 경과로 유방이 부풀어 유즙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유두구멍에 강력접착제를 발라 대비하면 유용할 것이다.

#### 5. 결론

이상 출품축 선정부터 훈련과정, 순치과정, 제모과정, 유방부풀리기 과정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아직도 제모기술이나 순치기술이 미흡한 분들과 처음 접하는 농가는 주위의 경험 있는 농가들을 통해 기술전수를 잘 받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신속한 길들이기와 자주 목욕을 시키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기대될 것이다. <다음호에 최종정리편 정리에정임>